

2025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재학(출신) 고교·도내 6개 관할 교육지원청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를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재학(출신) 고등학교 및 6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 졸업자 중 타 시험지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북에 주소지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해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접수는 장애인·수험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며, 시·도 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원서 제출 시 지원자는 응시원서와 사진 2매(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학력인정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지참해야 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원서접수처 방문 전에 수험생이 기초자료를 온라인에서 입력하는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www.mycsat.kr)'을 운영한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험생이 직접 기초자료와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사전 입력시스템 사용자도 반드시 접속처를 방문해 응시수수료 납부 등 접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 입력시스템에 입력 후 접수처를 방문하지 않으면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사전 입력시스템은 선택사항이며, 이용하지 않는 수험생은 현장에서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완주·진안·무주)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정읍·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장수·임실·순창) △김제교육지원청(김제·부안) 등 6곳이다.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전주 270-6062, 군산 450-2642, 익산 850-8830, 정읍 530-3021, 남원 620-7831, 김제 540-2571로 하면 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이 시험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실시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교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항공드론혁신융합

대학사업단, 장학금 지급

전북대학교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강승희)이 1학기 성과형 장학금 4,900만원을 총 65명의 학생에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사업단에 따르면 항공·드론 분야 혁신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항공·드론 시스템과 항공·드론 소프트웨어, 항공·드론 농업 과정 연계 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사업단 자체 심의를 통해 총 65명을 선정해 33명에게 100만 원을, 32명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승희 단장은 "첨단분야 혁신융합 대학 사업 장학금을 통해 항공·드론 분야의 혁신융합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첨단분야 교육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1학기 성과형 장학금 4,900만원을 총 65명의 학생에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국립군산대, 영국 대학과

첨단제조분야 공동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원장 권봉오)은 'K-글로벌 프린터 하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 임페리얼 대학교(Imperial College London)와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Strathclyde)에 기계공학부 박현범 교수팀을 파견해, 첨단 제조분야 국제 공동 연구와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생을 영국 대학에 장기 파견하는 공동 학위제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K-글로벌 프린터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하계 2팀, 동계 4팀이 최종 선발됐으며, 영국 임페리얼 대학교 및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에 파견한 '글로벌 공돌이팀'은 지도교수와 대학원 석·박사과정 5명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 및 글래스고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돌이팀'은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교 항공공학과에서 연구한 항공기 손상 검출 기법을 현재 연구 수행 중인 풍력 블레이드 손상 검출 기법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논의했다.

또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산하 국립제조 연구센터와 기계구조물 신기술 제작 기술 공동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산하 국립제조연구센터는 학생들을 위해 실무 제작 기술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립군산대학교와 MOU를 통해 공동 학위제 및 학생 파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베트남·스리랑카 상수도사업 평가기관 선정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9900만 달러 규모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이 우리 정부의 대외 유상원조(EDCF) 사업으로 베트남과 스리랑카에 건설된 총 9,900만 달러 규모의 상수도 사업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탄자니아, 베트남 교량사업 평가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은 이번에 상수도 사업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부문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특히 상수도 사업은 개발도상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인 만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건강 및 위생수준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 필수적인 안정

적인 공급용수 공급으로 개도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베트남 티엔탄 지역의 상수도 사업(4,100만 달러)과, 스리랑카 데루우오야 상수도 사업(5,800만 달러)에 대상이다. 이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효과적인 EDCF 원조지원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EDCF 자금으로 건설된 티엔탄 상수도 사업(2006~2018)이 공급용수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효과와, 기존 지하수 의존도를 낮춰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에 기여했는지와 관련이다. 특히 티엔탄 지역은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치민 인근의 최대 공급단지로, 단지 내 공단

에 대규모 공급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했느냐다.

스리랑카 데루우오야 상수도 사업(2011~2021)은 스리랑카 내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크루넬갈라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구축해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상수도 보급을 향상에 따른 만성신장질환(KD) 발생률 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 사업의 책임을 맡은 문경연 원장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원조사업이 베트남과 스리랑카의 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양국 간 협력사업이 한국과 개도국 간 우호증진에 기여한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 민간주도 과학문화 활동지원 선정 결과 발표

익산에 1곳·군산에 2곳... 기관당 1000만원 지원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센터장 유수창)는 '2024년 민간주도 과학문화 활동지원 사업'에 3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이 공모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단체의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과학기술문화 추진 주체의 다양화와 전북도민들을 위한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체험 기획 확대 등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민간주도 과학기술문화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총 3개 기관(익산시 1개, 군산시 2개)으로 기관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과학문화 성과 공유회, 중간 점검 및 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 유수창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아이템과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 등 지역과학행사는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 홈페이지(www.jbsci.or.kr)와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지역과학회와 역량강화 사업의 세부과제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복권기금 및 전북자치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제1회 교육감배 말산업 축제

23~24일 경마축산고서 개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교장 박준호)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국 유소년 말산업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24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승마의 주역 양성, 국산마의 우수성 홍보,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선진국형 레저 산업으로 정착시키고자 기획됐다.

주요 종목은 장애물 20m, 40m, 60m, 80m, 90m, 100m와 릴레이 경기 등 총 13종목에 걸쳐 36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해 자원을 겨룬다.

박준호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말산업과 연계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더불어 국내 말산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환경교육 수업지원자료 도내 교사들이 직접 개발

초등 3·4학년 대상 '우리 함께 초록 더하기' 보급 서책형 자료 한계 보완... 사진·영상 등 콘텐츠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 3·4학년 환경교육 수업지원자료인 '우리 함께 초록 더하기'를 제작·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북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 3월 보급한 초등 4학년 자료를 보완하고, 초등 3학년 대상 내용도 추가해 보완했다.

특히 온라인 학습 및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웹기반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형태로 개발해 기존 서책형 자료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풍부한 사진·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원은 △문제의 개념을 인식하고 생각을 넓히는 '알아보기' △'알아보기' △우리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체험하기'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탐색' 등이 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환경교육 지원 자료를 에듀테크 교육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

전북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내일 모의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오는 23일 교육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및 장애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분청 및 유지관리 업체 직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정전, 화재, 시스템 장애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이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보시스템의 전원을 무정전전원장치(UPS)로 전환한 후 신속하게 정상 종료하고, 정상적인 전원 공급으로 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전 훈련으로 실시된다.

장익 원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3~24일 전북학생수학동아리 진로체험캠프

고교생 13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24일 이틀간 전주리한호텔에서 전북학생수학동아리 진로체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수학동아리 학생 13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는 수학 관련 학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탐구활동, 특강, 수학과제탐구활동, 동아리활동 시제 공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이 아닌 주어진 과제를 서로 협력해 다양한 방

법으로 해결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날 이광연(한서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를 초청해 '좋은 수학공부법'을 소개하고, 서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캠프는 학교별 수학동아리 활동 내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 주도적 수학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한국어문화교육원은 21일 베트남 KINSA 유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기전대학 제공)

베트남 유학생들, 기전대서 한국어교육 받는다

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 베트남 KINSA 유학원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한국어문화교육원은 21일 베트남 KINSA 유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협력처 강진석 처장(한국어문화교육원장 겸직)은 "베트남 내에서도 우수한 기전대(KINSA) 유학원과 협약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교류를 통해 유학생 유지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전대(KINSA) NGUYEN XUAN HUY 유학원장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전주 기전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양 기관이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에는 현재 어학연수 및 본과 과정에 450여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